

이중언어능력의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한글, 한자, 한글·한자혼합문 형태의 덩이글 이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rehension of Texts with Korean Hangul, Chinese Hanja and
Hangul · Hanja among Korean-Chinese children and adolescents*

윤혜경(Hye-Kyung Yoon)¹⁾

박혜원(Hyewon Park Choi)²⁾

권오식(Oh-Seek Kwon)³⁾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rehension of texts written either in Korean script (Hangul) or Chinese script (Hanja).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the reading time and the correct response in text comprehension tasks with 104 Korean-Chinese children who were either 10 or 19 years old. There was a main effect of script : The reading time of Hanja texts was shorter than that of Hangul or Hangul · Hanja mixed texts. But the older subjects who spent the same reading time in both Hangul and Hanja texts showed the longer reading time in Hangul · Hanja mixed texts revealing the interaction between age and script. The correct response rate on the comprehension task was the highest in Hangul tex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t dual language processing systems in Korean-Chinese.

Key Words : 이중언어능력(bilingual ability), 덩이글 이해(text comprehension), 한글문장 덩이글(Hangul text), 한자문장 덩이글(Hanja text), 한글·한자 혼합문장 덩이글(Hangul · Hanja text).

* 이 논문은 2005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A00054).

¹⁾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복지연구소 연구교수

²⁾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³⁾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Choi, Dept.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37-309 Mookeo-2dong, Namgu, Ulsan 680-749, Korea
E-mail : hyewonc@ulsan.ac.kr

I. 서 론

문자는 말소리의 의미나 그 발음을 표상하게 되는데, 전자는 표음표기, 후자는 표의표기라 한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문자는 표음이나 표의 표기 중 어느 한 쪽을 취하는데 영어나 한글은 대표적인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그런데 한국어는 두 개의 표기체계(한글과 한자)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언어 중의 하나이다(Taylor, 1997). 우리 사회에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한글·한자의 사용문제 즉 한글 전용, 한글-한자 병용/혼용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이나 한자의 문자처리 특성과 두 문자가 우리의 언어와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두 문자처리의 상대적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위한 실험연구가 어렵다. 그 이유는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한글에는 매우 능숙하지만 한자는 읽는 것조차 어려워 한자 읽기, 한자에 대한 처리과정, 한자와 한글처리의 상대적인 효율성 등을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적 상황에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두 개의 언어를 지닌 수평적 이중언어(horizontal bilingualism) 체계에 놓여있는 조선족(박영순, 1990)은 한글과 한자의 처리효율을 검토하기에 좋은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박혜원과 강봉경(2004)은 Stroop 유사 과제를 사용하여 조선족 아동이 한국어의 두 언어에 대해서 거의 동등한 모국어 수준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수평적 이중언어자인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한자 혹은 한글·한자혼합 형태의 문장으로 구성된 덩이글

이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표기의 덩이글 이해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기 위해 그 대상을 10세 아동과 19세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였다.

인지심리학적 연구자들은 문자로 구성된 단어나 문장(sentence), 덩이글(text)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즉 문어처리과정을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Anderson(1985)은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지각단계로 시, 청각자극이 처음으로 약호화된 다. 두 번째 단계는 분절(parsing)단계로서, 일련의 단어들의 모임인 문장이 그 문법적인 구성성분으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진 구성성분들이 가지는 의미적인 특성이 표상된다. 세 번째 단계는 활용단계로서, 문장이 지닌 내용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한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질문에 답을 한다든지, 문장으로 표기된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Just와 Carpenter(1987)는 읽기과정에서 무엇이 처리되느냐에 초점을 두어 처리과정을 세분화하였다. 그 첫 단계는 어휘 수준의 처리(lexical level processing)단계이며 이는 다시 단어의 철자정보를 발음정보와 연관시키는 단어해독과정과 이를 의식적으로 상기해 내는 단어인출과정의 두 하위과정으로 나뉜다. 어휘적 수준보다 한 수준 높은 상위수준에서의 처리가 통사적 수준의 처리(syntax level processing)이다. 통사분석으로 분절된 구성성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적 실체를 형성하도록 행위자, 대상, 행위 등으로 문장 내에서의 의미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적 수준의 처리이다.

문장에 대한 어의적, 통사적 분석을 통해서 형성된 명제표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처리과정을 흔히 이해과정(comprehension process)이라 한다. 명제란 문장이 가진 추상적인 이미지로서

진위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의미단위이다. 하나의 명제에는 하나의 관계사(relation)와 하나 이상의 논항(arguments)이라는 두 요소가 있다. 관계사는 대개 동사, 형용사 등으로 논항들의 관계를 한정짓게 되며 논항은 명사나 대명사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명제표상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문들을 어순대로 그대로 기억하기 보다는 주장하는 의미정보(gist)를 표상한다(Kintsch, 1974). Wanner(1968)는 의미는 동일하나 어순에 다소 차이가 있는 문장, 또는 의미는 다르나 어순이 같은 문장 등을 사용하여 원래 제시되었던 문장과 동일한 문장을 찾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받은 문장의 어순을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받은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다. 연구결과 의미는 같고 어순만 바뀌었을 때가 어순과 의미가 바뀌었을 때 보다 오반응이 많았다. 또한 어순기억 지시를 받지 않은 비경고집단에서 의미변화 문장에 대한 수행은 100%이지만 어순변화 문장에서 틀린 문장을 고를 확률은 50%로 이것은 우연수준인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문장에 사용된 단어 어순을 그대로 기억하기 보다는 문장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반적인 글은 가장 단순한 진위판단을 할 수 있는 명제들의 집합으로서 단순 문장들이 특정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집합체를 이루는데 이를 덩이글이라 한다. 덩이글에 대한 이해는 덩이글에 제시된 정보들을 통해 이해자의 기억에 응집성 있는 심성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단어의 어휘처리나 문장의 통사처리, 의미처리를 넘어서 문장들 간의 관계에 관한 처리가 추가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자의 기억에 형성된 심상표상은 덩이글 정보의 표면적 형태로 유지되기 보다는 추상화되고 통합된 심성모형(mental model)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이

정모·이재호, 1996; 조혜자·이재호, 1996; van Dijk & Kintsch, 1983). 문장이해자의 기억에 심성모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덩이글 내에 포함된 수많은 정보들을 의미명제로 전환하는 과정과 덩이글 정보가 단서가 되어 이해자의 지식이 적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덩이글 정보와 이해자의 지식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덩이글 이해에서는 참조(referential) 처리와 인과(causal) 처리가 대표적인 하위처리인 것이다. 이 두 과정은 글의 요소인 개별 명제들 간의 관계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것이다(이정모, 1989; Just & Carpenter, 1987).

중국어와 한국어의 글(한문과 한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낱말의 변화가 전혀 없이 의미를 가진 개개 낱말의 어순에 의해서만 문법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언어이다. 즉 단어에 접사가 붙지 않고 시제나 어미변화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어미나 조사가 수없이 덧붙는 특성이 있다(오수진, 1998; 조련희, 2006). “좋은, 좋고, 좋으니, 좋아서” 등으로 어미가 변화되어 문장에서의 품사를 비교적 명확히 기술한다. 또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은, 는, 이, 가(주격), 의(소유격), 에(처격), 을, 를(목적격)” 등의 조사를 붙인다. 이렇듯 조사 등이 품사를 더욱 명확하게 지칭하므로 문장 내 단어의 위치 바꿈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중국어에서는 품사가 불명확하고 동일한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현재, 과거, 미래에 따라서 시제의 변화가 있다. 일반 동사의 원형사 뒤에 “았, 었, 였”을 붙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런 동사의 변화가 일체 없다. 예를 들어, “去”(qu)의 과거형도 “去”이고, 미래형도 과거분사형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

는 비교적 단순하다. 한국어에서는 “너, 자네, 맥, 당신, 어르신 등등으로 상대편과의 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어휘가 다양하다. 한국어와는 다르게 중국어에는 음절마다 성조를 가지고 있다.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을 나타내는 말로 한자는 글자마다 고유의 성조가 있다. 그래서 음이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진다. 문어에서는 성조표현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구어보다 문어이하나 해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자로 표기할 때 중국 한자는 의미를 문자에 나타내는 표의문자이며 한글은 말소리를 문자에 나타내는 표음문자라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표기적 특성의 차이는 한글, 한자의 단어나 문장의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언어가 가진 표기적 특성 즉 문자표기가 표음이나 표의냐 하는 것은 단어나 문장의 음독과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단어를 음독하는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의 발음정보를 인출하여 음독에 사용하는 어휘경로(이를 직접경로라 하기도 함)이고, 또 하나는 철자-발음 대응관계를 이용하는 음운경로(이를 간접경로라 하기도 함)이다. 이 두 경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문자-발음의 투명정도인 표음심도(orthographic depth)가 제안되었다(Liberman, Liberman, Mattingly, & Shankweiler, 1980). 각 언어가 가지는 문자와 발음의 대응관계 차원을 표음심도(orthographic depth)라 하며 깊거나 얇은 심도로 분류하였다. 한글과 같은 심도가 얇은 표기체계를 가지는 언어에서의 음독은 문자와 발음의 대응관계가 용이하므로 문자를 보고 명명반응을 하거나 어휘판단을 할 때 음운부호를 쉽게 조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와 같은 깊은 표음심도의 언어에서는 문자와 음운

의 대응이 복잡하므로 음운부호를 심성어휘집에서 색출하게 된다. 윤희경·박혜원·권오식, (2007)은 중국어, 한국어에 대해 동등한 모국어 수준의 이중언어능력을 가진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형태에 따라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나 문장읽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 또는 문장을 한글, 한자, 혹은 한글과 한자의 혼합으로 제시하고 읽도록 하는 소위 음독수행을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인 조선족 소학교 5학년이나 대학생들은 모두 한글로 표기된 단어 보다 한자로 표기된 단어를 음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단어의 발음을 생성해야 하는 과제 수행에서 한글표기가 한자표기보다 문자-발음의 대응이 규칙적이므로 한글단어를 음독할 때 문자-발음의 대응규칙을 적용하기가 더 용이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한자단어 음독시 심성어휘 접근을 통해서 그 발음정보를 인출하였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 단어처리와는 달리 문장 처리시에는 각 단어를 읽어가면서 문장 전체에 대한 의미표상 형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문장 음독 시에는 단어 음독시와는 달리 개개 단어의 의미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글 문장을 음독할 때 보다는 한자 문장을 음독할 때 의미접근과 함께 발음이 가능한 한 자음독이 용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험결과와는 이와 반대로 한글문장보다는 한자문장 음독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일련의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에 대한 음독에서도 단일 단어 음독시와 마찬가지로 한글문장이 한자문장 보다 음독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았다. 이것은 단어나 문장 음독과제에서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인출 없이 발음생성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글, 한자 표기문에서의 의미처리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미(어휘)판단이나

문장이해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어, 한국어 문장의 어순이나 통사단서, 문자의 의미표현정도 등이 다르며 이것이 단어나 문장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명제표상이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목적어, 목적지, 도구, 수량자 등이 논항이 되고 동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주제를 한정짓는 관계가 되어 그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성한다면 언어의 특성에 따른 어순이나 통사단서나 시제변화 여부 등이 명제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윤혜경·박혜원·권오식(2009)은 중국어, 한국어의 두 언어를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중국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음독과제보다는 문장이해 특히 명제형성 여부를 잘 드러내는 과제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한글, 한자 혹은 한글/한자 혼합표기로 제시하고 이 문장의 의미에 가장 적합한 그림을 선택하게 하는 문장-그림대응과제를 실시하여 제시된 문장을 읽는데 소요된 읽기시간과 정반응율을 비교 검토하였다. 문장의 최소한의 기본적 의미인 명제표상이 단어들 간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한글문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조사나 어미변화 등이 바로 각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져야 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문법적 장치로서 작용하므로 의미적 명제형성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의 기본적 이미지인 명제표상의 특성이 추상성이라면 언어처리자의 인지수준이나 어휘능력 등이 명제형성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장의 형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다. 연구결과 문장 읽기시간을 보면 중국 조선족은 한글이나 한글·한자혼합문장을 읽는데 한자문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이는 단어, 문장 음독과제수행을 검토한 연구(윤혜경·박혜원·권오식, 2007)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즉 음독과제와 달리 반드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문장-그림대응과제에서는 한글문장보다 한자문장에서 더 용이하였다. 이는 한자문장은 문장의 발음과 의미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문장이해의 정반응율은 문장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였으며 단지 피험자의 연령에 따라서 수행수준이 달라졌다. 즉 중국 한족이든 조선족 이든 10세 연령에서는 .6 정도의 수행을, 대학생들은 .8 정도의 정반응율을 보여주었다. 문장이해의 기본이 되는 명제표상이 단어들 간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한글문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조사나 어미변화 등이 바로 각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게 되므로 명제형성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보면 명제표상 정도는 한글문장, 한자문장 혹은 한글·한자의 혼합문장에 관계없이 오직 연령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다. 더우기 중국어만 사용하는 한족 소학교 5학년 아동과 대학생들의 한자문장에 대한 읽기시간이나 정반응 수행도 동일한 연령의 조선족과 거의 유사하였다. 이것은 명제가 최소의 의미 단위로서, 제시된 문장의 구체적인 특징보다는 문장이 나타내고자 하는 추상적인 의미정보들을 표상하게 되며, 따라서 한글, 한자 혹은 한글·한자혼합의 문장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피험자의 연령에 따른 인지능력 수준이 명제표상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글, 한자 혹은 한글·한자혼합 형태의 문장으로 구성된 덩이글 이해에 관심을 두었다. 동일한 의미의 한글, 한자, 혹은 한글·한자혼합 문장의 덩이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정반응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두 언어가 거의 동등한 수준인 이중언어처리자들에서 한글, 한자의 두 문자체계 처리간의 상호작용양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

해서 지시어나 조사, 어미들이 잘 발달되어 문장들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 준다(유효려, 2005). 특히 --도(동일보조사), --는(차이보조사), --만, --조차.--까지(단독보조사)들은 문장의 앞뒤 관계를 비교적 잘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이 문장들간의 관련성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면 덩이글이 한글·한자형태 혹은 한글·한자혼합 표기 여부에 따라서 덩이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차이가 예상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심양 조선족 10세 아동 52명(남 : 25명, 여 : 27명 : 평균 연령 : 10.3세)과 대학교에 재학중인 19세 대학생 52명(남 : 27명, 여 : 25명 : 평균 연령 : 19.6세)이었다. 조선족의 한자문장에 대한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국 한족 10세 아동 21명(남 : 10명, 여 : 11명 : 평균 연령 : 10.3세)과 한족 대학생

19명(남 : 10명, 여 : 9명 : 평균 연령 : 19.3세)도 역시 참여하였다.

중국 조선족들은 가정에서는 한국어, 지역사회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 소위 이중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을 10세와 19세 연령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연령층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에 대해서 진정한 수평적 이중언어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박혜원과 강봉경(2004)의 연구는 조선족 10세와 19세의 대학생들이 자동적 의미처리수준을 반영하는 한글, 한자를 사용한 Stroop과제에서 서로 매우 유사할 정도의 간섭, 촉진효과를 보여 두 언어를 동등한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덩이글 이해와 추론의 인지과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작업기억의 용량(조명환·고성용·조병환, 2007)이나 덩이글에 대한 인지구조의 형성과 정교화(Brown & Smiley, 1977)라는 측면을 보면 5학년 정도의 연령에서부터 중요한 발달적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글과 한자의 사용이 모두 자유로우면서 덩이글 이해와 추론이 가능한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글덩이글 : 인기 최고인 친구는 내 질문에 짚막하게 대답만 할 뿐 묻는 일이 없었다. 그 때문에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다. 도무지 일엔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나도 언젠가 인기최고 처럼 할머니 전화를 건성으로 받았던 일이 생각났다.

문제 : 인기 최고인 친구의 성격은?

- ① 소박하다 ② 게으르다 ③ 다정다감하다 ④ 냉담하다

한자덩이글 : 人气最高的朋友只是很短地回答了我的提问, 他没提问. 因为那个所以对话没有连续地接下去, 好象完全对别的事情不关心. 我也想起了以前任意接奶奶电话的事情.

问题 : 人气最高的朋友的性格是?

- ① 朴素 ② 懒惰 ③ 多情多感 ④ 冷漠

한글·한자혼합 덩이글 : 人气最高인 朋友는 내 问题에 짚막하게 回答만 할 뿐 发问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 때문에 이야기가 连续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다. 도무지 다른 일엔 关心이 없는 模样이었다. 나도 언젠가 人气最高처럼 祖母 电话를 건성으로 받았던 일이 生角났다.

문제 : 人气最高인 친구의 性格은?

- ① 朴素하다 ② 게으르다 ③ 多情多感하다 ④ 冷漠하다

로 하였다.

2. 과제

본 연구에는 덩이글 이해과제가 사용되었다. 이 과제는 일련의 문장(평균 3.5문장)으로 구성된 덩이글을 읽고 제시되는 언어적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문장내의 주인공의 행동이나 행동원인 추론, 정서추론을 하거나, 내용으로부터 인과추론, 사고추론, 내용추론 등을 하여 답하는 20개 문제로 구성되었다. 덩이글 이해과제의 세 가지 표기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본 과제는 연구자가 구성한 덩이글 이해과제를 한국의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 1명과 학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족 학생 1명이 우선 과제를 풀어보면서 덩이글의 주제나 내용이 중국 피험자들에게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것을 검토, 수정, 변환하고 이를 다시 한국 대학의 중문과에 재직 중인 조선족 출신의 교수가 검토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자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자체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덩이글은 구체적으로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 사람의 성격이나 신체, 외모, 꽃이나 화재, 동식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사용 등으로 10세나 19세 피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이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한 덩이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대학생보다는 소학교 5학년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두 연령집단 간 과제수행의 차이는 사용한 단어, 문장의 난이도 뿐 아니라 연령차에서 오는 지식이나 여러 능력의 차이로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주관심사는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 동일한 의미의 문장이 한글로, 한자로 혹은 한글, 한자혼용으로 제시되었을 때 문장형태에 따른 수

행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절차

본 실험은 2008년 6월-7월 삼주일 동안 중국 심양에 있는 소학교, 대학교의 빈 교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라포형성을 위해 이름, 연령 등을 묻고 인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지시문과 함께 과제설명을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일련의 문장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문장들을 읽고 나서 이어져 제시되는 문제에 적절한 답을 읽은 문장들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해서 네 개의 선택지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고르는 것임을 인식시켰다.

우선 화면에 제시되는 일련의 문장들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정확하게 속으로 읽고 나서 space bar를 누르면 화면의 중앙에 십자가 “+” 모양이 제시되고, 이어서 그 위치에 언어적 문제와 4개의 선택지가 제시되며 피험자가 4개의 번호 중에서 앞에서 읽었던 일련의 문장의 내용으로부터 가장 잘 추론되는 선택지의 번호(1, 2, 3, 4번 중의 하나)를 가능한 한 빨리 누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답지선택반응이 끝나고 나면 다시 “+” 형태가 나오고 이어서 위의 절차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두 개의 연습문제를 하고 이어서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컴퓨터 화면에 일련의 문장 제시에서부터 피험자가 속으로 읽고 space bar를 누르는 시간까지 경과한 시간(읽기 시간)을 1/1000초(ms)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화면에 제시된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언어적 문제에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선택한 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정반응 수행이 측정되었다.

중국 조선족 피험자들은 한글, 한자, 한글·한자혼합문 덩이글의 세 과제유형 중 한 형태의 과

<표 1> 중국 조선족 10세, 19세의 세 형태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읽기시간의 M(SD)

연령	한글(a)	한글·한자(b)	한자(c)	평균	Scheffe
10세	30571.03 (10831.46)	17808.93 (7829.12)	17684.72 (6511.01)	21199.50 (9974.731)	a>b=c
19세	19712.49 (6032.69)	25842.31 (9135.25)	16603.02 (9898.52)	20698.20 (9394.810)	b>a=c
	24954.54	21717.06	17143.87		a=b>c

* : 단위는 ms임.

제가 주어졌는데, 10세, 19세 집단별로 한글 덩이글 과제 조건에 15명, 한글·한자혼합 조건에 19명, 한자조건에 19명씩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세 형태의 과제는 피험자 간에 counter-balancing 하여 제시하였다. 중국 한족 10세와 19세 피험자들에게는 한자문장의 덩이글 이해과제만이 주어졌다.

III 결과분석

중국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대학생의 세 형태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읽기시간과 정반응수행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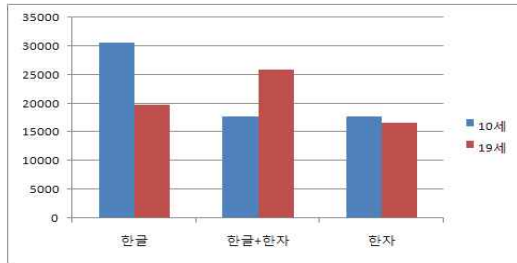
1.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덩이글 읽기시간 분석

중국 조선족 피험자들이 동일한 의미의 덩이글을 한자, 한글 그리고 한자·한글 혼합문장 형

태로 제시한 조건에서 보인 덩이글 읽기에 소요된 시간이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 제시된 덩이글 읽기시간을 변량분석한 것이 <표 2>이다. <표 1>과 <표 2>를 보면, 우선 중국 조선족 19세($M=20698.20$, $SD=9394.810$)와 10세($M=21199.50$, $SD=974.731$) 피험자들의 덩이글 읽기시간의 차이는 없었다($F(1,98)=.601$, $p>.05$). 덩이글 문장형태에 따른 읽기시간을 보면 한글 문장, 한자문장 그리고 한글·한자 혼합문장의 덩이글을 읽는데 각각 25초, 17초, 22초 정도 소요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98)=7.519$, $p<.001$). 또한 연령과 덩이글 형태에 따른 읽기시간을 보면 10세에서는 한글 형태($M=30571.03$, $SD=10831.46$)에서 가장 길었고 한자 덩이글($M=17684.72$, $SD=6511.01$), 한자·한글혼합 덩이글($M=17808.93$, $SD=7829.12$)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19세에서는 한자·한글혼합 덩이글($M=25842.31$, $SD=9135.25$)에서 가장 길었으며 이어서 한글 덩이글($M=19712.49$,

<표 2> 중국 조선족 10세, 19세의 세 형태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읽기시간에 대한 변량분석

변산	SS	df	MS	F	유의도
연령(a)	43418335	1	43418335	.601	$p>.05$
덩이글형태(b)	1.09E+09	2	5.43E+08	7.519	$p<.001$
a*b	1.45E+09	2	7.27E+08	10.052	$p<.001$
오차	7.08E+09	98	72279743		



<그림 1>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읽기시간

$SD=6032.69$), 한자 덩이글($M=16603.02$, $SD=9898.52$) 순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F(2,98)=10.052$, $p<.001$)<그림 1>.

한글, 한자 그리고 한글·한자혼합문장 덩이글 형태에 따른 읽기시간의 차이를 사후 검증(Scheffe 검증)한 결과, 한글과 한자 덩이글 간의 차이만 유의미하였다($p<.001$). 또한 연령별 세 형태의 덩이글 읽기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10세 피험자에서는 한글과 한자 덩이글 간의 차이($p<.005$), 한글과 한글·한자혼합 덩이글 간의 차이($p<.005$)만 유의미하였다. 19세 피험자에서는 한글과 한글·한자혼합 덩이글($p<.05$), 한글·한자혼합과 한자 덩이글($p<.05$)간의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중국어만을 모국어로 하는 한족 10세, 19세 피험자들의 한자 덩이글 읽기시간을 보면 각각 16529.00ms, 15737.00ms로 중국 조선족 피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F(1,72)=0.003$, $p>.05$).

세 유형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덩이글 읽기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이중언어능력을

지닌 조선족 10세와 19세 피험자들은 동일한 의미의 한자 문장의 덩이글을 읽는데 한글이나 한글·한자 혼합문장의 덩이글보다 더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덩이글 형태에 따른 읽기시간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10세 피험자들은 한글문장으로만 구성된 덩이글 읽기시간이 한자나 한글·한자혼합 문장의 덩이글 보다 2배 가까운 읽기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19세 피험자들은 한글이나 한자덩이글 읽기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한글·한자혼합 문장의 덩이글에서 더 많은 읽기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2.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정반응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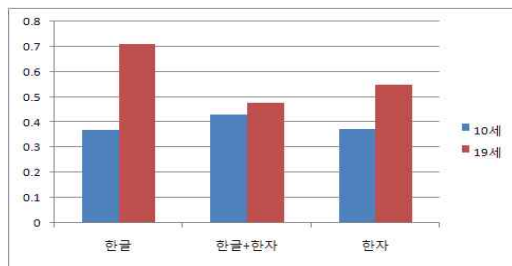
한글, 한자 그리고 한글·한자 혼합문장 형태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보인 정반응율의 평균이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제시된 덩이글 이해 정반응율을 변량분석한 것이 <표 4>이다. <표 3>, <표 4>를 보면 19세 피험자($M=.569$, $SD=.165$)는 10세($M=.393$, $SD=.127$)보다 높은 정반응 수행을 보였다($F(1,98)=51.595$, $p<.001$), 덩이글 형태에 따른 정반응율을 보면 한글형태 덩이글($M=.545$, $SD=.230$)에서의 정반응율이 한자형태($M=.454$, $SD=.122$), 한글·한자 혼합문장($M=.460$, $SD=.153$)형태의 덩이글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98)=3.961$, $p<.05$). 또한 연령과 덩이글 형태에 따른 정반응율에서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F(2,98)=10.393$, $p<.001$).

<표 3> 중국 조선족 10세, 19세의 세 형태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의 M(SD)

연령	한글	한글·한자	한자	평균	Scheffe
10세	.368 (.150)	.374 (.111)	.432 (.122)	.393 (.127)	a=b=c
19세	.710 (.155)	.550 (.140)	.476 (.121)	.569 (.165)	a>b=c
	.545 (.230)	.460 (.153)	.454 (.122)		a>b=c

<표 4> 중국 조선족 10세, 19세의 세 형태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정반응율에 대한 변량분석

변산	SS	df	MS	F	유의도
연령(a)	.902	1	.902	51.595	$p < .001$
덩이글형태(b)	.139	2	.069	3.961	$p < .05$
a*b	.364	2	.182	10.393	$p < .001$
오차	1.714	98	.017		



<그림 2>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정반응율

즉 10세에서는 한자, 한글·한자혼합, 그리고 한글문장 덩이글 순으로 수행이 좋았으며 19세에서는 한글, 한글·한자혼합 그리고 한자문장 덩이글 순으로 수행이 좋았다<그림 2>.

한글, 한자 그리고 한글·한자혼합의 덩이글 형태에서의 정반응율 차이를 Scheffe 방법으로 사후분석하였는데 한글과 한글·한자혼합 덩이글 간의 차이($p < .05$), 한글과 한자 덩이글 간의 차이($p < .05$)만 유의하였다. 또한 연령별 세 형태의 덩이글 이해과제의 정반응율의 차이도 Scheffe 방법으로 사후분석하였다. 10세 피험자에서는 세 형태의 덩이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19세 피험자에서는 한글과 한글·한자혼합 덩이글($p < .005$), 한글과 한자 덩이글 간의 차이($p < .001$)만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중국어만을 모국어로 하는 한족 10세, 19세 피험자들의 한자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정반응율을 보면 각각 .448, .473으로 중국 조선족 피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F(1,72)=0.003, p > .05$).

세 유형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덩이글 이해

정반응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이중언어능력을 지닌 조선족 10세와 19세 피험자들은 한글문장의 덩이글에서 가장 높은 수행을 보여주었다. 덩이글 형태에 따른 이해 정반응율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10세 피험자들은 덩이글 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19세 피험자들은 한글 덩이글에서 한자나 한글·한자혼합 덩이글보다 훨씬 높은 정반응율을 보였다.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읽기 시간과 이해 정반응율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10세 피험자들은 한자 덩이글보다 한글 덩이글에서 읽기시간을 훨씬 더 필요로 하였으나 이해 정반응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19세 피험자의 경우도 한글, 한자 덩이글 읽기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한글 덩이글에서 이해 정반응율이 더 높았다. 또한 중국 조선족의 한자 덩이글 읽기시간과 이해 정반응율을 보면 중국어만을 사용하는 중국 한족 10세, 19세의 수행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자문장의 덩이글보다 한글문장의 덩이글에서 이해가 더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를 동등하게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중국 심양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문장, 한자문장 그리고 한글·한자의 혼합문장 형태의 덩이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중언어처리자의 덩이글 이해과정에서 한글, 한자의 두 문자체계 처리간의 상호작용 양상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덩이글 이해과제가 사용되었다. 이 과제는 일련의 문장(평균 3.5문장)으로 구성된 덩이글을 읽고 문장내의 주인공의 행동이나 행동의 원인, 정서 등에 대한 추론, 저자의 생각이나 의도, 후속 내용 등에 대한 추론, 비판을 하여 제시된 언어적 문제에 답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에서 제시된 덩이글을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덩이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해과제의 정반응율은 덩이글로부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 내용들로부터 여러 추론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덩이글 이해과제에서 덩이글 읽기시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중언어능력을 지닌 조선족 10세와 19세 피험자들은 동일한 의미의 한자 문장의 덩이글을 읽는데 한글이나 한글·한자 혼합문장의 덩이글보다 더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문장 음독과제를 사용한 연구(윤혜경·박혜원·권오식, 2007)에서 조선족 10세, 19세들이 한글문장에서 한자문장보다 음독시 소요되는 시간이 짧았던 것과는 다르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하는 문장-그림대응과제를 사용한 연구(윤혜경·박혜원·권오식, 2009)에서 한글문장에서 읽기시간이 더 길었던 것과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덩이글이든 문장이든 단순 음독이 아니라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 한자형태에서 의미인출이 되면서 동시에 발음도 인출되므로 읽기가 더 빨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한자 사용 지지자들이 표의문자인 한

자의 시각적 형태가 바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의미의 즉각성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강조하는 바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해 정반응율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 덩이글 형태에 따라 읽기시간이 차이를 보여 10세들은 한글문장으로만 구성된 덩이글 읽기시간이 한자나 한글·한자혼합 문장의 덩이글 보다 훨씬 더 많은 읽기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19세 피험자들은 한글이나 한자덩이글 읽기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한글·한자혼합 문장의 덩이글에서 더 많은 읽기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10세 피험자들에서 한글 덩이글 읽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하는 문장-그림대응과제를 사용한 연구(윤혜경·박혜원·권오식, 2009)에서와 동일한 양상이다. 이것은 10세 아동들은 한글문장이나 덩이글 이해에서 읽고 나서 다시 이해하는 이중의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족 피험자들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정반응율을 보면 세 형태의 덩이글 중에서 한글문장의 덩이글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19세들은 한글문장의 덩이글에서 .710으로 한자문장, 한글·한자의 혼합 덩이글보다 높은 수행을 보였다. 이는 단순 문장의 이해의 명제형성은 한글문장, 한자문장 혹은 한글·한자의 혼합문장에 관계없이 오직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는 윤혜경 등(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련의 문장으로 구성된 덩이글 이해에서 문장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는 점에서 볼 때, 한글 문장에서는 지시어나 조사, 어미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덩이글을 구성하는 문장들 간의 관련성을 쉽게 형성하여 한글형태의 덩이글 이해가 더 용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글·한자의 혼합형태는 우리나라의 한글·한자 병용의 문어형태이다. 10세 피험자들의 한글·한자의 혼합문장의 덩이글에서의 읽기시간과 이해 정반응율을 보면 한자문장의 덩이글과는 차이가 없으나 한글문장 덩이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러나 덩이글 이해정반응율이 한자나 한글덩이글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글문장 덩이글과 한자문장 덩이글 읽기시간에 차이가 없는 19세 피험자들은 한글·한자의 혼합문장 덩이글의 읽기시간에서 한글문장 덩이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고 덩이글 이해 정반응율도 더 낮았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 피험자들이 비록 중국어, 한국어의 두 언어를 동등하게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글이나 한자덩이글보다는 한글·한자의 혼합문장의 덩이글을 이해하는데 읽기시간이나 정반응율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글, 한자의 두 문자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문자처리체계에서 다른 문자처리 체계로의 변환과정이 관여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표기체계나 이중언어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hafullah와 Monsell(1999)은 표의문자인 간지와 표음문자인 가나를 사용하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험연구를 하였다. 범주화과제를 사용한 실험 1에서는 간지의 판단이 가나의 판단보다 빨랐고, 명명(음독)과제를 사용한 실험 2에서는 가나의 명명이 간지의 명명보다 더 빨랐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가나와 간지의 표기교환시행과 비교환시행을 넣어서 시행유형에 따른 반응시간과 오반응이라는 교환에 따른 손실비용을 비교하였다. 이때 어려운 과제에서 쉬운 과제로 교환될 때 비용이 더 컸고, 쉬운 과제에서 어려운 과제로 바뀔 때 비

용이 적어졌다. 즉 범주화과제에서는 간지에서 가나로 바뀌는 경우보다 가나에서 간지로 교환되는 경우에 반응시간과 오반응이 더 많았다. 반면에 명명과제에서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표의문자인 간지는 의미접근이 우선하며, 표음문자인 가나는 발음생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표음문자인 가나는 발음생성이 용이하여 명명과제에서 더 빠르며 가나의 명명과제가 쉬운 과제이므로 가나시행에서 간지시행으로 변화시 처리할 여유가 있어 손실비용이 적은 것이다. 범주화과제에서는 표의문자인 간지가 용이하며 따라서 간지에서 가나로의 변화시행에서 오류나 반응시간이 적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는 또다른 연구를 수행한 Meyer와 Ruddy(1974)는 영어와 독일어의 이중언어자를 대상으로 두 개의 항목을 제시하여 어휘판단(단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언어에서의 두 단어보다 서로 다른 언어에서 온 두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의 반응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두 표기체계 혹은 두 언어에 대해서 숙달된 독자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표기나 언어 사이에 전이하는 경우에 교환 손실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두 표기체계의 처리방식이 다르며 또한 두 체계가 통합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능력을 가진 중국 조선족 피험자들의 한글·한자의 혼합문장의 덩이글 이해과제의 수행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언어체계에서의 덩이글 이해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한 언어의 더 우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두 언어체계의 상이한 특성들이 일

련의 문장들의 모임인 덩이글처리에 어떻게 반영되며, 이중언어자들의 두 문자처리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는 중국어, 한국어의 두 언어에 대해서 균형잡힌 이중언어능력자인 심양의 중국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 조선족 자치구역으로 이중언어자인 연변의 조선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심양의 조선족 10세 아동과 19세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한자문장의 덩이글 이해과제에서의 읽기시간, 정반응율을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족의 수행과 비교하여 심양조선족의 수행이 진정한 중국어 처리자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양 조선족들의 한글문장에 대한 수행 역시 한국어만을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들의 수행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한자, 한글·한자의 혼합문장 덩이글에 사용한 한자는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번자체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간자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의 한글·한자혼용, 병용의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물론 중국 조선족들은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자체 뿐 아니라 번자체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으나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번자체를 사용하는 한국어 거주하는 중국인 화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덩이글 형태에 따른 이해 정도를 검토한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한글, 한자의 혼합문 형태는 본 연구의 피험자인 중국 조선족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라 읽기시간이나 정반응이 길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나친 일반화는 어렵다고 생

각되며, 중국어, 한국어의 이중언어능력을 가지면서 한국어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검토한다면 보다 확고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영순(1990). 이중언어 이론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6(11), 135-167.
- 박혜원·강봉경(2004). 그림 Stroop과제에 나타난 조선족의 한글 및 한자어처리에 관한 연구 : 한족 및 한국아동의 수행과의 비교. *이중언어학회지*, 26(1), 146-161.
- 오수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조사교육,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효려(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 비교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박혜원·권오식(2007). 이중언어능력의 조선족 아동과 대학생의 한자와 한글 단어, 문장 음독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회지*, 33, 121-140.
- 윤혜경·박혜원·권오식(2009). 중국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한글, 한글·한자혼용, 한자의 문자표기에 따른 문장 이해, *인간발달연구*, 16(1), 105-119.
- 이정모(1989). 글 이해의 심리적과정의 한 모델. 조명한 외(공저), *인지과학*, 215-268, 서울 : 민음사.
- 이정모·이재호(1996). 글 이해의 심리적 과정. 이정모(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서울 : 학지사.
- 조련희(2006).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조사학습 순서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한·고성용·조병환(2007). 작업기억과 담화 이해와 처리.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46집, 제1호, 1-35.
- 조혜자·이재호(1996). 글 이해와 추론과정 : 추론의 유형과 특성. 이정모(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서울 : 학지사.
- Anderson. J. (1985).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 W. H. Freeman & Company.

- Brown, A. L., & Smiley, S. S. (1977). Rating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units of prose passages : A problem of meta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8*, 1-8.
- Just, M. A., & Carpenter, P. A. (1987). *The Psychology of reading and language comprehension*. Boston : Allyn and Bacon.
- Kintsch, W. (1974). *The representation of meaning in memory*. Hillsdale, NJ : Erlbaum.
- Liberman, I. Y., Liberman, A. M., Mattingly, L. G., & Shankweiler, D. L. (1980). Orthography and the beginning reader. In J. F. Kavanagh & R. L. Vanezky(Eds.), *Orthography, reading and dyslexia (pp.137-153)*. Ba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 Meyer, D. E., & Ruddy, M. G. (1974). Bilingual word-recognition : Organization and retrieval of alternative lexical codes. Paper presented to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Philadelphia.
- Shafullah, M., & Monsell, S. (1999). The cost of switching between Kanji and Kana while reading Japanes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 14* (5/6), 567-607.
- Taylor, I. (1980).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P.A. Kolers, M. Wrolstad & H. Bouma(Eds.), *Processing of Visual Language 2*. New York : Plenum Press.
-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Y. : Academic Press.
- Wanner, R. M. (1968). On remembering, forgetting and understanding sentences. A study of the deep structure hypothe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8년 11월 1일 투고, 2008년 12월 31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